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비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1년간 일자리 하향 수정치 예상...금리 인하 쪽으로
- WSJ: 미 노동시장 둔화에 보건 분야 일자리만 '약진'

[무역 전쟁]

- CNBC: 연방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정책 패소하면 막대한 환급금 초래" 경고
- Bloomberg: 미, 삼성과 하이닉스에 중국 반도체 '연간 수출 승인 제도' 검토
- Bloomberg: 트럼프 '메이드인 미국' 정책, 현재 공장 이민 단속으로 흠집내
- Bloomberg: 트럼프 "미국 노동자 훈련 시킬 외국 전문가 필요하다"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중국의 대미 수출 33% 감소... 흑자는 거의 기록적
- WSJ: 일본 경제, 관세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장 지속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알리바바, 휴모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
- Bloomberg: BYD, 새로운 신차 모델로 유럽 진출 크게 확대
- CNNBusiness: 맥도날드, 새로운 가성비 좋은 메뉴 출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Another US Jobs Markdown Sets Stage for Fed Cut, BLS Criticism

미 1년간 일자리 하향 수정치 예상...금리 인하 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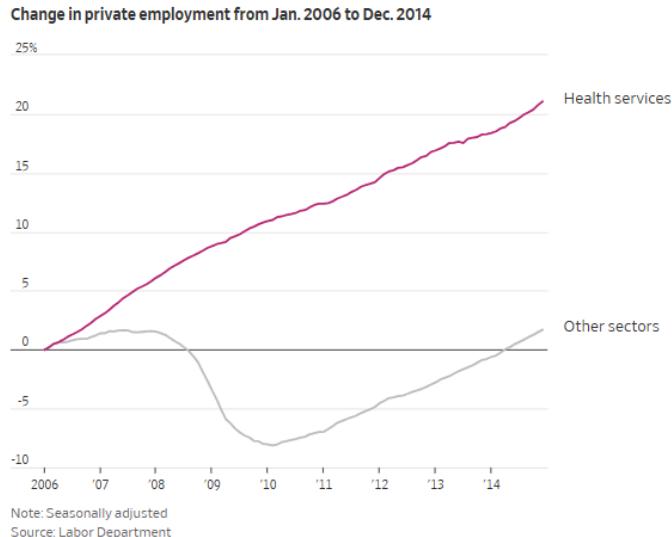
- 올해 3월까지 1년간 미 일자리 관련된 수정치가 연방 노동국이 곧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해당 1년간의 일자리가 정부의 발표보다 아마 덜 견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Wells Fargo 등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예상하고 있다.
- 작년에 노동시장이 훨씬 둔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작년 3월까지의 1년간의 일자리가 현재 발표한 것보다 거의 80만개 적고, 매달 평균으로는 6만7천개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Healthcare Jobs Are a Rare Bright Spot in the Stalling Labor Market

미 노동시장 둔화에 보건 분야 일자리만 '약진'

- 미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다. 그중에 일자리가 늘어난 곳은 헬스케어와 사회 서비스를 포함한 보건 서비스 분야다. 구체적으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매달 일자리 성장수자는 월 평균 7만6천개. 그중에 무려 6만6천개가 보건 서비스 분야라는 것.
- 그러나 이같은 보건 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일자리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만간에 닥칠 메이케이드 삭감이 해당 일자리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 그리고 연방 노동부의 데이커가 보건 서비스 분야의 강한 숫자를 과장했을 수도 있다. 향후 수정치가 하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무역 전쟁]

CNBC: Treasury Secretary Bessent warns of massive refunds if the Supreme Court voids Trump tariffs

연방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정책 폐소하면 막대한 환급금 초래” 경고

- 연방 재무장관인 Scott Bessent은 대법원에서 결정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들(상호 관세 등)은 승소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패쇄할 경우 기업들에게 막대한 환급금을 미국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인 Kevin Hassett는 관세 정책이 막힌다면 행정부는 다른 법적 수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연방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재 미국 수입품의 70% 가까이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CNBC 기사

Bloomberg: US Mulls Annual China Chip Supply Permits for Samsung, Hynix

미, 삼성과 하이닉스에 중국 반도체 ‘연간 수출 승인 제도’ 검토

- 미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중 반도체 수출 라이센스 허용을 올해 말 까지 중단키로 했었다.
- 그런데 이에 따른 글로벌 전자 산업의 혼란을 막기 위한 개선책으로 이들 한국기업에 연간 단위로 반도체 대중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장비, 부품, 자재 등을 구체적인 수량까지 파악해 승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은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반도체 수출을 허용하되 미 정부에서 가시적인 통제 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s Made-in-USA Push Undermined by Hyundai Raid, Visa Flaws

트럼프 '메이드인 미국' 정책, 현재 공장 이민 단속으로 흡집내

- 외국기업들이 미국에 일자리 창출과 제품 생산을 하도록 하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이같은 프로젝트로 공장을 건설하는 일력을 타깃으로 하는 미국 정부의 단속으로 오히려 자기모순적인 모습이 들어났다.
- 이번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합장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은 이들 기업들이 외국인 엔지니어와 하청업체 인력을 들여올 수 있는 비자 선택이 어렵다는 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온 같은 회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미국 투자와 관련해 미국 비자 정책의 실제적인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American Battery Belt

South Korea's EV battery makers are planning to build 15 plants in the US



Source: Company data

Bloomberg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 Says Georgia Raid Shows Need for Training US Workers

트럼프 “미국 노동자 훈련 시킬 외국 전문가 필요하다”

- 트럼프는 어제 일요일 한국기업들이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과 관련해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시킬 전문가들을 데려올 방법을 강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 그는 뉴욕에서 연린 US 오픈 테니스 대회를 관람하고 DC로 돌아오는 길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미국에서 매터리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없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 근루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일부 외국사람들을 데려와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China Exports to US Slump 33% But Trade Surplus Heads for Record

중국의 대미 수출 33% 감소... 흑자는 거의 기록적

- 중국의 대중 수출 성장률은 지난 6개월간 최악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이 33% 감소한 것이다.
- 반면에 중국의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 전체 수출은 8월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4.4% 증가한 3천2백20억불을 기록했다.
- 중국의 무역흑자는 작년의 거의 기록적인 1조달러 기록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면 해외 수출이 국내 수요 약세를 보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과 수출 둔화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Japan's Economy Continues to Grow Amid Tariff Woes, Revised Data Confirms

일본 경제, 관세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장 지속

- 일본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이 연율로 2.2%로 상향조정됐다. 당초에는 1.0%로 발표됐었다. 이에 따라 분기로는 5차례 연속 성장하고 있다.
- 당초 회복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 수요는 0.4% 성장, 자본 지출은 0.6% 성장해 당초 추정치를 초과했다.
- 관세 협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출 관세와 국내 수요가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을 이끌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Alibaba leads \$100 million investment in Chinese humanoid robot startup

알리바바, 휴모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

- 휴모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체인 중국계 기업인 X Square Robot는 알리바다 클라우드가 주도한 펀드 행사에서 1억달러를 확보했다.
- 전 Sequoia Capital China가 HongShan으로 개명한 회사도 이번 펀드에 참가했다.
- X Square Robot의 COO는 “우리 회사는 제품을 학교와 호텔, 요양원에 판매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CNBC 기사

Bloomberg: BYD More Than Doubles Europe Models as Push Intensifies BYD, 새로운 신차 모델로 유럽 진출 크게 확대

- 중국계 회사인 BYD는 중국내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 신차 모델로 쇼룸 확대를 통해 유럽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 이 회사에 따르면 유럽내 수백개의 현재 공급업체들과 협의하면서 올해 말까지 유럽내 32개 국가에 1천개 이상의 매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차량 모델도 2년전의 6개에서 현재 13개로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CNNBusiness: McDonald's is giving its value menu another shakeup on Monday 맥도날드, 새로운 가성비 좋은 메뉴 출시

- 맥도널드가 2019년에 없앤 할인 메뉴 품목인 Extra Value Meals 메뉴를 다시 선보인다.
- 이와 관련 이번주에 8개의 새로운 매뉴를 선보이게 되는데 Big Mac, Chicken McNuggets, Egg McMuffin, Quarter Pounder 등에 음료와 사이드를 포함시키는 메뉴다.
- 이번 콤보 메뉴들은 개별적인 매뉴를 시킨 것 보다는 15% 할인 가격이 된다고 회사측은 홍보하고 있다.
- 이번 메뉴들은 올해 말까지 선보이며 가격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

CNN&nbsp; 기사

[보고서]

[오늘의 소개글]

EU "신규 러 제재, 美와 긴밀조율"...제재특사 워싱턴행

유럽연합(EU)이 8일(현지시간) 신규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관련, 미국 측과 긴밀히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핀란드 헬싱키를 방문해 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 올로프 길 EU 집행위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데이비드 오설리번 EU 제재담당 특사가 현재 EU 내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라고 밝혔다.

길 부대변인은 "그들(EU 대표단)은 오늘 오후 중 미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만나 제재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U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가 초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EU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제재 논의에 적극적인 것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처럼 대서양 양쪽에 형성됐기 때문이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